

보도시점 2026. 6.17.(수) 09:00

배포 2026. 6.17.(수) 08:00

##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

- 청년뉴딜 추진방안 신속집행·확대 추진 및 신규과제 발굴
- 업종별 고용동향 분석 및 단기조치·제도개선 등 대응방안 마련
- 일자리전담반, 경제관계장관회의 통해 순차적 논의·발표

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6.17일(수) 08: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(TF)을 주재하여 ①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②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, ③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(안) 등을 점검·논의하였다.

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,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△4.0만명 감소해 '24.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, 고용률도 전년동월 대비 △0.5%p 하락했다. 업종별로는 제조업(△5.5→△14.0만명), 건설업(△0.8→△4.3만명), 농림어업(△9.2→△12.1만명)의 부진이 심화되었으며, 연령별로는 청년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감소(△2.4%p)하고 실업률은 증가(+0.6%p)하는 등 청년 고용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.

이에 정부는 최근 인구·산업구조 변화, 경력직 수시채용 관행 확산에 더해 중동전쟁 영향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층 고용 회복을 위한 지원과제를 추가로 발굴한다. 기존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\*하고, 성과와 수요가 많은 사업 중심으로 지속 확대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, 신규 과제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.

\* K-뉴딜 아카데미(6월부터 모집, 7월부터 개설), 체납관리단(7월: 5,500명, 9월: 4,000명) 등

다음으로 최근 **중동전쟁 장기화**의 영향으로 부진이 심화되거나 고용비중이 큰 제조·건설·농림어업 등 **주요 업종별\***로 동향을 분석하여 **업종별 가용 정책 수단**을 총동원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.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즉시 개선하고 **현장소통도** 더욱 강화한다. 아울러 **고용 관련 인센티브 강화**를 포함한 **중장기 제도개선 과제**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이다.

\* (제조) 산업부·중기부 (건설) 국토부 (농림어업) 농식품부 (전문과학) 과기정통부 (교육) 교육부 (보건복지) 복지부 (문화·예술·체육) 문체부 등

마지막으로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**인공지능전환(AI)** 및 **녹색전환(GX)** 등 **산업전환**과 관련된 **신산업 인력수요 변화**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**직무전환이 필요한 노동자**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. 정부는 이를 위해 노동자의 **전환역량 강화**, **이전직 지원**, **고용안전망** 및 **정책 인프라 구축** 등의 내용이 담긴 「**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**」을 마련하여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.

최근 **중동전쟁 종전 협상**이 타결되었으나 **불확실성**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**민생 및 고용시장의 어려움**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, 정부는 당분간 **매주 일자리전담반 회의**를 개최하여 **부문별 대응방안**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**경제관계장관회의**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태웅 (044-215-8530)
		담당자	사무관 김문수 (sin20219@korea.kr)
		담당자	사무관 박종운 (jwpark416@korea.kr)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 이상임 (044-202-7210)
		담당자	서기관 김철수 (xel loss@korea.kr)

